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82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6)서검은오름(상)-식생
식나무·붓순나무 국내 최대 군락

입력 : 2004. 02.06. 00:00:00



서검은오름은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해 있다. 구좌읍 종달 지경 중산간에도 검은(거문)오름이 있는데 이를 동검은오름(거미오름)이라 부른다. 서검은오름 탐사는 2003년 12월20일 시작해 27일, 올해 1월 10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들의 자체 탐사와 평가·분석작업도 진행됐다. 탐사 결과, 서검은오름은 독특한 식물상과 지질구조를 비롯해 일제 강점기 당시 군 사령부가 주둔했었고 한국 근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의 상처가 베어있는 공간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식물상을 시작으로 역사, 지질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서검은오름을 집중 게재한다.

서검은오름 탐사가 처음 진행된 12월 20일을 전후해 제주 중산간에는 폭설이 내렸다. 이날 탐사는 정작 서검은오름을 답사한다는 설레임 보다도 눈쌓인 오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욱 컸다. 바깥 사면에는 삼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고 해송과 측백나무가 조림지를 채우고 있어 여느 오름과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오름 정상 경사면을 따라 무릎까지 쌓인 눈속 조림지를 헤치고 나왔다. 조림지를 벗어나 돌무더기가 있는 곳자왈쪽에 이르자 온기가 느껴진다. 희귀식물 식나무와 온갖 양치식물들이 혹독한 겨울날씨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 삭막하기만 했던 오름 사면의 조림지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분위기다.

서검은오름은 식물에 대한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다. 제주도 중산간 이하 지역에 분포하는 오름의 화구 주변 식생은 대부분 초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검은오름 화구 일대는 자연림으로 숲이 형성된데다 더욱이 난대수종이 빼곡히 들어찬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식물상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탐사팀은 분화구에 이르자 눈을 의심했다. 입구에서 몇그루 보았던 식나무가 수도없이 펼쳐져 있는게 아닌가. 탐사팀은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3차에 걸쳐 분화구 안쪽을 비롯해 하구와 이어진 하류 계곡을 따라 탐사를 진행해 나갔다. 고정군 탐사위원은 "서검은오름은 제주도내 난·온대 식물이 분포하는 몇몇 오름 중 난대식물이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 숲은 화구를 중심으로 약 4km 정도 연속되어 형성된 침식계곡상에 전체적으로 분포한다"고

말했다.

화구 안쪽에서부터 보았던 식나무는 계곡 사면을 따라 계속 이어진다. 탐사팀이 3차에 걸쳐 직접 확인한 식나무의 분포 범위는 폭 30m, 길이 2km에 이른다. 강영제 탐사위원은 “이 정도만으로도 식나무 분포범위가 수만평방m에 이르는 것이며 줄잡아 3만여 그루가 집단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나무 자생지는 이곳에서 멈추지 않는다. 탐사단은 이 때문에 1월 17일 체오름 일대를 대상으로 식나무 분포범위에 대해 재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식나무의 자생지가 하류 체오름 일대까지 계속 이어져 어림잡아도 족히 수km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번 탐사를 통해 규명됐다.

붓순나무 군락지를 확인한 것도 이번 탐사의 수확이다. 한라산학술탐사팀은 지난 1999년 천미천 계곡 중류에서 붓순나무 군락지를 확인 보도한 바 있는데 서검은오름 일대의 붓순나무 군락지도 식나무와 더불어 국내 최대규모로 추정된다.

고정균 위원은 “서검은오름은 제주도 중산간 이하 지역의 원식생을 파악하는 학술적 자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식물 자원화를 위한 종 공급원의 역할 수행 등 2차적인 자원적 가치 또한 매우 높아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열대·온대 양치식물 공존

제주도는 양치식물의 보고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양치식물은 대략 2백50~3백종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 2백여종이 자생한다. 국내 양치류의 80% 이상이 제주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식물학자들은 제주도에 아직 기록되지 않았거나 신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타날 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지난 2002년에는 일제시대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치류에서 ‘종’의 개념을 한단계 뛰어넘는 ‘속’ 식물이 발견돼 학계가 떠들썩했다. 제주에서 발견돼 ‘제주고사리삼’으로 명명된 양치식물이 바로 그것이다.

서검은오름 식물상의 또 다른 특징은 양치식물의 발달이다. 전문가들은 이 곳의 양치식물을 관찰하며 다시 한번 놀랐다. 서귀포 앞 쇄섬과 천지연계곡에서만 분포가 확인됐던 ‘주름고사리’, 한라산 남쪽계곡 바위틈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된 ‘지느러미고사리’, 해발 800~900m에 주로 자라는 ‘좁고사리’가 해발 400m의 서검은오름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던 ‘쇠고사리’도 바로 이곳에서 대규모로 관찰되었다.

특히 계곡에는 산굼부리와 같은 함몰분화구가 비경을 감추고 있다. 분화구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끼류와 양치류로 장관을 이루는 그야말로 원시림이다. 희귀 양치류인 골고사리(변산일엽)가 고사목에 붙어 자라는 현장도 목격됐다. 돌출된 암반, 함몰지형과 같은 지형

적 특성, 상록활엽수림으로 인한 높은 공중 습도, 소(沼) 형태의 미소환경이 독특한 양치식물상을 잉태한 것이다.

양치식물 전문가인 문명옥씨(난대산림연구소)는 “서검은오름은 아열대와 온대성 양치식물이 서로 공존하는 지역으로 양치식물 생리·생태 연구지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극찬했다./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희귀난대식물 집중분포... 정밀조사 필요

서검은오름 주변 환경은 제주도에서도 독특한 지역이다. 서검은오름 분화구에서 시작되어 용암이 흘렀던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흐른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평지 난대상록활엽수림이 자리한 선흘곶이 시발로 추정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동부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상록활엽수가 잘 발달하여 있는 지역이다.

주요 수종을 보면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흰새덕이, 보리장나무, 붓순나무 등이 교목층과 아교목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바닥에 자라는 초본 중에는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없는 양치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문도와 제주도의 섬에서만 자생한다고 알려진 나도은조롱(*Marsdenia tomentosa*)이 발견되었는데 이 식물은 박주가리과의 상록성 덩굴식물로 일본 난대지방과 제주도 섬섬 및 제주도 동부지역 일부에만 자라는 희귀식물로 자생지 조사가 필요한 식물이다.

또한 제주도 남쪽계곡과 천미천 일대에서 분포하는 붓순나무(*Illicium religiosum*)도 대규모로 분포하는 것이 조사되었다.

특히 분화구 안쪽 계곡을 따라 하류 약 2km까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식나무(*Aucuba japonica*)군락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식나무는 제주도에서 해발 500m이하의 지역에 드물게 분포하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키작은 상록활엽수로서 3m정도까지 자란다. 잎과 자라는 모양 및 열매가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달리고 아주 그늘진 장소를 좋아하는 수종이라 아파트나 주택의 실내 관상용 및 공기정화용 식물로 적합한 자원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대부분 자생지는 계곡 주변에 드물게 분포하지만 서검은오름 계곡은 사람과 동물의 간섭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약 30,000본 이상의 집단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최대의 식나무 군락으로 추정되고 종 보존과 제주자생식물의 자원화연구가 필요한 수종이다.

특히 계곡을 따라 군데 군데 위치한 여러 크기의 함몰 분화구에서는 풍부한 공중습도, 따뜻한 기후와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이 어려워 양치류를 비롯한 많은 상록수종들이 원시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제주도 상록수림대의 옛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 생태학습장 및 경관과 식생 등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그밖에 영주치자, 벌깨냉이, 섬사철난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강영제 탐사위원(식물분야/난대산림연구소)>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강시영·이윤형차장()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알림]2월 8일(일요일)은 조천 민오름·산굼부리·까끄리오름을 탐사합니다. 탐사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오전 9시까지 본사 휴게실로 나오시면 됩니다.

[사진설명]서검은오름 하류 침식계곡상에 형성된 함몰분화구의 원시림. 함몰지형과 높은 공중 습도로 인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식물상을 간직하고 있다. 네모안 사진은 나무에 붙어 자라고 있는 골고사리.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